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2536호 (2021.07.06) 게시기간 : 2022.07.05 출금번호 : EP26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가맹점영업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형용을 받지 않습니다. 유통권역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kethics@ibk.co.kr



IBK MAGAZIN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21. AUTUMN | VOL.23



CONTENTS

2021 AUTUMN | VOL. 23

32

WM SPECIAL

당장이 아닌 내일을 내다보는 성심
동부이촌동WM센터

36

THE LAW

2022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 개정안

40

TRAVEL AGAIN

가을 정취의 정수를 거닐다
캐나다의 퀘벡 VS 한국의 순천

48

CLASSIC CLASS

탱고 음악에 영광의 역사를 선물한
아스토르 피아졸라

50

TOAST TO THE FLAVOR

역사를 잇는 이에게 명주는 없다
전통의 3대 명주

04

FOCUS ISSUE 1

메가트렌드 메타버스에 대한
진화 전망과 투자 전략

10

FOCUS ISSUE 2

미래 테크 경쟁의 주도권을 위한
데이터 안보 전쟁

16

GLOBAL REPORT 1

급등락을 오가는 국제유가,
산유량 감산 합의에 이목이 집중되다

20

GLOBAL REPORT 2

드디어 시작된 스페이스 오디세이,
변화의 길을 내다보다

24

TAX GUIDE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26

INVESTMENT

2021년 4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발행일 2021년 9월 1일

발행처 IBK기업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82

기획·디자인·제작 이팝 02-514-7567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와 투자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지금, 장기적인 미래 전망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메타버스가 변화시킬 미래를 파악하여 정확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글 윤기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미래학 겸임교수

메가트렌드 메타버스에 대한 진화 전망과 투자 전략

주가 급등 중인 메타버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가 뜨겁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으로 알려진 로블록스(Roblox)의 기업 가치는 대략 50조 원에 달한다. 한국형 메타버스인 네이버의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ZEPETO)는 한류에 힘입어 가입자가 2억 명을 넘어섰다. 메타버스 인프라 기업에 해당하는 엔비디아(NVIDIA)의 주가는 2020년 3월 이후 숨

가쁘게 오르고 있다.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소문이 나면 주가가 급등한다.

그런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PwC는 2019년 보고서에서 2030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로 인한 시장이 1조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아크투자(Ark Invest)는 2021년 보고서에서 2030년에 가상현실 기기가 스마트폰만큼 대중화될 것으로 보았다. 메타버스를 단기간에 사라지는 마이크로트렌드가 아닌 메가트렌드로 보아야 할 이유이다. 메가트렌드인 메타버스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일이다. 장기적인 가치투자로 메타버스에 대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 변화를 전망해야 하며, 산업생태계를 숙지해야 한다.

메타버스의 구성요소: 몰입, 아바타, 플랫폼

메타버스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다. 메타버스는 몰입, 아바타,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몰입이란 가상현실 기기나 증강현실 안경을 이용하여 현실과 거의 다르지 않은 가상실재(Virtual Presence)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상현실 등을 통칭하여 확장현실이라고도 한다. 이 가상실재의 공간은 말 그대로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분간할 수 없도록 한다. 우리말 ‘가상(假像)’은 표준국어대

사전에 ‘거짓 형상’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으며, 가상으로 번역되는 ‘virtual’은 옥스퍼드 영영 사전에 따르면 ‘현실과 다르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아바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분신이다. 제페토는 만화 캐릭터와 같은 아바타를 만들어 다양한 문화 활동과 디지털 소비를 이끌어 내고 있다. 사용자는 얼굴의 주근깨와 피부의 질감까지 묘사하는 아바타를 창조할 수 있다. 이들 기술은 영화나 광고 혹은 게임에서 활용된다.

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서 양면시장이라고도 한다. 서로 다른 수요를 가지는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만나 그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 상품 매매를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이다. 메타버스의 가상실재 플랫폼에서는 서로 다른 사용자가 만나 가치를 교환한다. 디자이너는 아바타가 착용할 옷이나 장신구를 디자인하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할 수 있으며, 어떤 사용자는 개발자로서 메타버스의 프로토콜에 따라 게임을 개발하고, 다른 사용자는 게임을 구매하고 즐긴다. 교육 콘텐츠의 공급과 소비, 광고주와 광고 소비자, 관광지와 관광객 등이 만나서 서로 가치를 만드는 장소가 메타버스의 플랫폼이다. 현재 로블록스는 몰입, 아바타, 플랫폼의 세 가지 요소 중 아바타와 플랫폼을 만족시킨다. 로블록스가 일부 가상현실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제페

토 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강현실 기능을 제공하는 하지만, 증강현실 안경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몰입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메타버스의 진화를 전망할 때 장기적으로 이들 기업이 몰입형 기술을 도입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단기 미래: 가상실재를 경험하는 몰입형 메타버스의 등장

현재부터 2024년까지를 본격적인 몰입형 메타버스가 등장하는 단기 미래라 볼 수 있다. 증강현실 안경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증강현실 기기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2022년 증강현실 안경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현실 기기는 용도가 제한적인 반면 증강현실 기기는 그 쓰임새가 매우 넓다. 제조업에서 교육 현장에까지 활용되며,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타겟으로 하지만, 애플이 출시할 안경은 대중을 주 고객으로 한다. 애플의 도전적 움직임에 페이스북과 삼성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기반의 플랫폼이 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의 주요 승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주목을 받을 것이며, 기반 플랫폼을 통해 독과점을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물론 가상현실 기기의 진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가상현실 기기가 사



람 육안 수준의 시야각과 화소 수를 제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나, 2024년쯤엔 한쪽 눈에 약 1,600만 화소가 가능한 가상현실 기기가 대중화될 것이다. 2020년 가장 대중적인 가상현실 기기는 한쪽 눈에 대략 400만 화소였으며, 2018년에는 200만 화소, 2016년에는 100만 화소였다. 대중적 가상현실 기기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화소 수가 2년에 2배씩 증가하는 신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 존재한다. 이 법칙이 지속된다면 2030년 전에는 한쪽 눈에 6,000만 화소가 될 것으로, 가상공간의 정밀도는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것이다.

중기 미래: 메타버스의 대중화로 다양한 메타버스 제품 등장

단기 미래를 지나면 증강현실 안경 등의 보급

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구분 짓자면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메타버스가 대중화되는 중기 미래인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아크투자는 2030년에 가상현실 기기가 현재의 스마트폰만큼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가 되면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으면서 가상공간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조에서 서비스, 교육에서 여행, 근무 방식에서 정부 구조에까지 변화가 올 것이며, 이에 따라 증강현실 안경 등을 이용한 다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다. 다만 닷컴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시의 전환이 휴대성의 변화라면, 메타버스로의 변화는 인식과 체험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 여

전히 독과점의 이익을 향유하겠으나,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이 원소스 멀티플랫폼(One Source Multi Platform) 체계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하드웨어 플랫폼과 비즈니스 플랫폼 간의 합종연횡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의 대중화에 따라 관련 스마트폰 기업은 증강현실 안경, 가상현실 기기, 소형 스마트폰 제조업으로 진화할 것이며, 증강현실 기기 등의 소재와 부품 기업도 큰 이익을 누릴 것이다.

장기 미래: 메타버스의 고도화로 완전한 AR/VR 기술 등장

2030년부터 2040년까지는 메타버스가 고도

화되는 시기이다. 미래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저널인 퓨처리즘(Futurism)은 2016년 보고서에서 2038년 완전한 몰입형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보았다. 이 전망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델파이 기법을 근거로 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대체적인 전망으로서 참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증강현실 안경과 가상현실 기기는 더욱 진보할 것이며, 사물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가상공간과 실재공간이 융합할 것이다. 가상실재 기술 발달에 따라 실재공간에서의 회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지도 서비스와 메타버스가 융합된 서비스는 전

자상거래에서 여행까지 융합된 메타버스로 진화할 것이다. 다만 이때까지 콘택트 렌즈형의 증강현실 기기가 대중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BMI(Brain to Machine Interface)로 냄새나 촉각 혹은 미각을 구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메타버스 생태계 분석을 통한 투자 전략의 필요성

미래 변화에 따른 투자는 매력적이기는 하나 불확실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메타버스의 장기 가치투자를 위해서는 메타버스 생태계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은데,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안경과 같은 특정 기술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바타, 사물통신, 물리컴퓨팅,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 무선통신 기술 등이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이룬다. 생태계 분석을 통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탐색할 수 있다.

필자가 올해 5월 <월간SW중심사회>에 발표한 메타버스 생태계 지도와 뉴주우(Newzoo)가 올해 6월 발표한 메타버스 생태계 지도(Metaverse Ecosystem Diagram)를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가상현실 기기 등의 부품소재 산업, 4D 체어 등 물리컴퓨팅 관련 기업, 메타버스 관련 사물통신 기업, 3D 콘텐츠 제작 솔루션·콘텐츠 제공 기업, 공간정보 기업, 콘텐츠 제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및 아바타 관련 기업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

●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특정 영역에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에 투자할 것을
제언한다.

한 불확실성이 있다. 더구나 일부 메타버스 기업은 고평가된 PDR(Price to Dream Ratio)로 인해 매출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보다 뚜렷하고 굵직한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특정 영역에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에 투자할 것을 제언한다.

메타버스는 메가트렌드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비즈니스 전략 및 정치·경제·사회의 전환을 가져와, 메타버스가 사업 운영과 투자에 대한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승기를 잡을 기업이 어느 곳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닷컴버블이 붕괴하기 이전에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 아는 자는 많지 않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를 앞서 전망한 사람이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메타버스의 단·중·장기의 변화를 전망하고,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분석한 글로벌 가치투자를 하는 것은 충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미중 간 이슈로 귀결되는데, 미국 정부는 견제를 중국 정부는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공산당의 과실죄'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 정부의 의중을 조금 더 깊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글. 박승찬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미래 테크 경쟁의 주도권을 위한 데이터 안보 전쟁

서막일 뿐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알리바바에 이어 디디추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사교육 금지 등 이어지는 기업규제 정책과 그에 따른 시장 변화가 요즘 중국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디디추싱은 고점 대비 30% 이상, TAL 에 듀테크는 70% 이상 폭락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국내외 매체에서는 디디추싱이 중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장을 감행해 공산당의 과실죄에 걸렸고, 그로 인해 앱 다운로드 금지,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중국 정부의 속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사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 제재의 서막일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근거로 디디추싱을 포함해 미국 상장한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향후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미중 간 자본시장발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견제 그리고 중국 정부의 반격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와 단속 목적은 결국 미중 간 이슈로 귀결된다. 2020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틱톡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틱톡을 매각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중국 모바일 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사이버 전쟁과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화웨이, 중싱 등 중국 주요 통신장비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미국 내 시장행위 및 증시 상장 접근에 대한 문턱을 높이며 전면적인 견제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속내는 명확하다.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자금줄을 막고, 자국의 데이터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역시나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중국 정부도 국가와 데이터 안보의 명분 아래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따라서 디디추싱 사태를 단순히 ‘공산당의 중국 플랫폼 기업 기강 잡기’ 정도로 보는 것은 수박 겉핥기 식의 접근이다.

플랫폼 기업에 제재를 가한 중국 정부의 표면적인 이유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한다. 중국 정부의 표면적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춤은 중국이 추고, 돈은 미국이 번다’는 것이다. 중국 플랫폼 기업들 대부분이 매출의 90% 이상을 자국에서 벌면서 미국 상장 후 미국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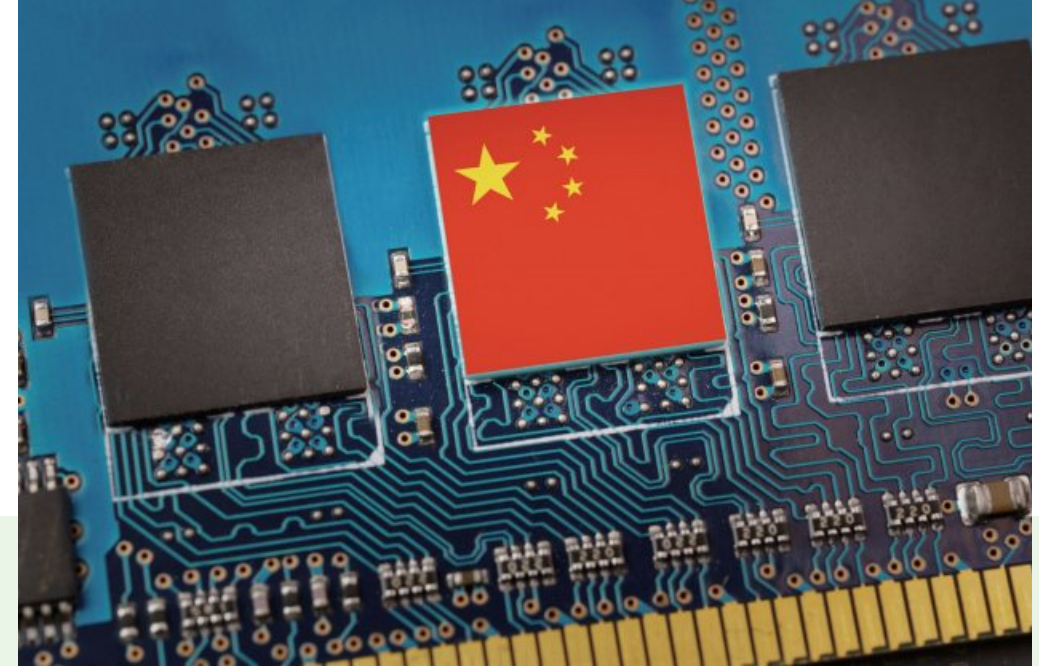
부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 상장된 약 250여 개의 중국 기업들 대부분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그런 배경하에서 순조롭게 뉴욕 및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 커창반(科创板)¹⁾을 개설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홍콩 및 본토 증시 회귀를 위해 진행한 중국예탁증서(CDR·China Depository Receipt) 제도를 개혁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이면적 이유 1.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한 전략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실제 내면적인 배경과 속내는 무엇일까?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한 전략적 접근 가능성이다. 내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된다. 3연임을 위한 헌법과 당장의 관련 조항까지 수정했지만 민심을 얻는 게 시 주석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모두 최근 들어 중국 내 사회적 혼란과 대중의 지탄을 받아온 기업들이다.

“알리바바는 P2P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고향을 빨아먹는 기업이다.”, “996 문화(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주 6일 일하는 근무 환경)는 젊은 세대들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한 마윈 회장을 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자’라고 비판하는 SNS 댓글이 빠르게 전파

1) 2019년 7월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개설된 기술·벤처기업 전문 증시이다.



되고 있다. 디디추싱도 라이더의 임금체불 및 열악한 복지환경 등의 이슈로 사회적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기업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 불평등을 조성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제재를 통해 14억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 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제재 배경에는 수많은 중국 젊은 세대의 지지와 호응을 바탕으로 설계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이면적 이유 2. 미중 간 패권경쟁의 우위를 위한 데이터 안보

둘째, 미중 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 안보 전쟁이다. 데이터는 향후 미중 간 첨단산업 및 군사안보의 패권경쟁에 있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경제 안보 이슈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관련

법규 제정을 완비하고 있다. 이른바, ‘3+2 종합 세트’ 법안의 완성이다. 여기서 ‘3’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3종의 안보 관련 패키지 법률을 의미하고, ‘2’는 ‘반독점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정거래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을 의미한다. ‘3+2’ 법안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데이터’와 ‘안보’라는 키워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디디추싱 사태의 경우 ‘3+2’ 법률 테두리 안에 갖혀 있는 형국인 셈이다. 현재 ‘네트워크 보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향후 ‘국가보안법’ 및 ‘데이터 보안법’, ‘반독점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에도 모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디디추싱은 전기차 사업 확장과 전차지도 제작을 위해 중국 곳곳의 도로 지형과 인프라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 데이터가 미국에 유출되는 것

을 우려할 것이다. ‘데이터 보안법’ 입법 초안 당시 교통 분야는 빠져 있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의 미국 이전 가능성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교통 데이터 영역도 새롭게 데이터 보안법에 추가되었다. 최근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으로 ‘증권위법 활동을 엄격히 타격하는 데 관한 지침’까지 발표했다. 100만 명이 넘는 회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중국 IT기업이 해외 상장을 하려면 반드시 국가안보에 위협 요인이 없는지 사전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지침이다. 지금부터 해외로 유출되는 안보 및 관련 데이터를 꼼꼼히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이면적 이유 3.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외국 기업을 향해 든 칼날

셋째, 향후 미국의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가 더욱 확대될 경우 그에 따른 보복 조치를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이다. 데이터와 안보의 칼날은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외국 기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데이터 보안법’ 3장 26조를 보면 ‘어떤 국가나 지역이 데이터와 데이터 개발 기술 등과 관련된 투자, 무역 등에 있어 중국에 차별적인 금지나 제한을 가할 경우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법’의 경우도 미국 기업들을 움아멜 조항들이 존재한다. 미국에 서버가 있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으로 이전해야 하고, 반드시 중국 네트워크 보안법 규정에 따라 보안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스템이나 업무별

로 각각 다른 보안등급을 받아야만 중국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디지털 안보를 위한 현 중국 정부의 정책 노선

중국 인터넷 사용자 규모가 11억 명에 이르고, 인터넷 사이트는 약 450만 개, 모바일 앱은 약 350만 개에 이를 정도로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시장은 매우 방대해졌다. 문제는 디지털 안보가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에,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월 중국 인터넷 관리 기구인 국가인터넷 정보관공실은 도우인, 콰이소우, 바이두 등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105개 인터넷 플

랫폼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시정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7월 30일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바이트댄스, 샤오미 등 25개 중국의 대표적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을 불러 모았다. ‘3+2’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고, 미중 간 경제 안보 전쟁에 대비해 현 정부의 정책 노선에 보조를 맞추라고 주문했을 것이다.

데이터 구축이 핵심인 미래의 테크 경쟁

중국은 데이터 왕국이다. 데이터의 확장은 결국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을 의미하고, 인공지능 기술은 향후 군사 및 국가 안보를 지배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

의 데이터 왕국인 중국을 반드시 견제해야만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중국도 그런 미국의 의중을 꿰뚫기 시작했다. 단순히 자국 테크 기업 규제를 넘어 향후 다가올 미중 간 데이터 안보 전쟁을 위해 집안 단속을 먼저하고, 그에 따른 보복의 칼날을 가는 것이다. 미중 간 신경전이 무역전쟁을 넘어 기술패권으로 확대되면서 전세계 글로벌 밸류체인(GVC)과 거버넌스를 뒤흔들고 있다. 화웨이, 중싱 제재로 시작된 양국 간 테크 경쟁은 향후 데이터 안보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더욱 복잡하게 소용돌이 칠 것이다.

미래의 테크 경쟁은 데이터 구축이 핵심이다. 양국 간 데이터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 중국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제재와 기업 조사는 시 주석의 3연임 이슈와 맞물려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독점적 이슈에 해당될 만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조성하는 부동산, 사치품 등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업종에 대한 투자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결국 미중 간 테크 경쟁에서 중국이 약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B2B(기업 간 거래) 업종과 농촌 및 친환경, 신에너지 산업 육성 등 중국 정책 방향의 흐름에 올라타는 지혜가 필요하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잠시 멈춰 옷깃을 여며야 한다.



GLOBAL REPORT 1

급등락을 오가는 국제유가, 산유량 감산 합의에 이목이 집중되다

‘초과 수요’와 ‘감산’의 반복으로 급등과 급락을 오가던 국제유가. 현재는 OPEC+의 감산 지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주요 산유국들의 ‘유가 전쟁’ 역사를 통해, 국제유가의 향방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글.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연구원

국제유가의 주요 키워드 ‘감산’

현재 국제유가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감산’이다. 지금부터 5년여 전인 2016년 초 유가는 끝없이 하락하고 있었다. 당시로부터 1년여 전인 2014년 하반기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던 유가는 2015년에 하락을 거듭하며 2016년 1월 23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를 계기로 기존 OPEC(석유수출국기구) 외에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산유량 협의 그룹

OPEC+가 출범하게 된다. 2016년 말에 이루어진 OPEC+ 감산 합의는 연장을 계속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감산’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주요 산유국이 최대 생산 능력(Capacity) 이하로 생산하면서 유가의 하락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감산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경우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이전에 나타났던 유가 슈퍼 사이클

감산 규모와 지속 여부에 석유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이 모습은 2010년 이후 나타난 현상일 뿐 그 전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며 장기간에 걸친 유가 상승 사이클이 나타났다. 이때 유가 상승을 이끈 주인공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연 평균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구가하며 원유 소비 증가를 주도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BRICS라 불리는 신흥 공업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의 역할도 있었지만 중국의 비중이 가장 컸다. 중국의 원유 수요는 10년 동안 약 2배로 늘어나면서 유가는 2000년 배럴당 20달러 수준에서 2008년 여름에는 150달러에 도달했다.

1970년대에는 더 강력한 원유의 슈퍼 사이클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전후 재건이 마무리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급증했다. 원유 수급이 빠듯하여 산유국이 조금만 생산을 줄여도 바로 에너지 공백이 나타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환경이 아랍의 석유 무기화를 가능하게 하면서 오일쇼크로 연결되기도 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1979년에 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는데, 사실 오일쇼크라는 사건이 아니어도 1970년대는 지속적으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1970년대 초반 배럴당 3달러 수준이었던 유가는 1970년대 후반에 30달러를 넘었다. 당시 한국도 급속한 산업

화로 석유 소비가 급증하면서 산유국의 눈치를 봐야 했다. 1973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친아랍성명을 발표하며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에서 아랍의 편을 들어주었고, 1977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곳을 테헤란로로 명명하며 주요 산유국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미국의 셰일오일로 인해 OPEC+ 내에 감산 감소 무용론

‘초과 수요’가 지배하는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처럼 ‘감산’이 지배하는 시기도 있었다. 두 국면이 반복되면서 유가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왔다. ‘감산’이 지배하는 지금의 시장도 과거처럼 ‘슈퍼 사이클’ 국면에 접어들게 될까. 만약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

지금의 공급 과잉과 그로 인한 감산을 초래한 주인공은 미국의 셰일오일이었다. 셰일혁명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미국의 산유량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석유 시장은 지각 변동을 겪게 되었다. 앞서 말한 대로 2015년의 유가폭락을 촉발했고 2016년에는 OPEC+라는 새로운 감산 합의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2018년에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극했다. 셰일 오일은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이 때문에 OPEC+ 내에서 감산 무용론이 제기된다. OPEC+가 힘겹게 감산을 하면 그 빈자리를 미국의 셰일오일이 채우고, 미국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감산의 열매를 미국이 누린다는 불만은 2020년 3

월 감산 중단으로 이어졌다. 러시아가 감산 협의의 거부한 것이다. 사우디 역시 증산을 선언하면서 국제유가가 폭락한다. 세계 언론은 이를 ‘유가 전쟁’이라 불렀다. WTI(서부텍사스원유) 선물유가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가 상황은 산유국 전체의 공멸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오래갈 수 없었다. 결국 2020년 4월 OPEC+는 일일 97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한다. 하루 970만 배럴이면 세계 원유 소비량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었다.

세일오일은 이제 시장의 변수가 아닌 상수다

석유시장을 들썩인 세일오일은 앞으로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까? 세일오일이 지난 10여 년간 유가 등락의 주요 요인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없던 새로운 물량이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없던 물량이 10년의 시간을 두고 시장에 들어오면서 기존 질서를 흔들었다. 말 그대로 세일 혁명이었다. 그러나 지금 세일오일은 굴러온 돌이 아니라 박힌 돌로 정착했다. 2019년 이후 미국의 세일 생산량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도 세일오일의 생산량은 큰 증감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때마침 등장한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처럼 공격적인 원유 증산을 추구할 가능성은 작아졌다.

세일오일 덕분에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에 등극한 이후 혁명이라 불릴 만한 상황은 지나갔다.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그

들의 산유량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상황을 즐길 것이다. 감산 합의에도 불참하는 패권국의 권리도 누릴 것이다.

OPEC+ 감산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다

석유 시장의 관심은 다시 OPEC+의 감산 지속 여부로 모아진다. 작년 하반기부터 감산 합의는 점차 완화되면서 감산 규모는 처음의 970만 배럴에서 580만 배럴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서 감산 물량이 580만 배럴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OPEC+회원국이 580만 배럴을 감산 중이어서, 그만큼의 추가 생산 역력이 있고 이 숫자에 속임이 없다면 향후 유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석유 소비량이 올해 대비 약 31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¹⁾ 즉, OPEC+의 생산 능력 안에서 증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맞다면 세계 원유 재고는 안정을 유지하면서 유가도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많은 유가 예측 기관에서도 2022년 석유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돼도 공급은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적어도 표면상 수치로는 그렇다.

그러나 OPEC+의 여유 생산능력이 580만 배럴에 못 미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산유국이 감산 물량을 정할 때 각국 최대 생산량 등에 근거해 감산량을 배분한다. 이때 산유국은 자국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 부풀리려 한다. 생산 능력을 부풀릴수록 생산 쿼터를 크게 받아 감산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산 협의 직전 일

1) IEA(2021), "Oil Market Report", Jun 11.

부러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꼼수로 상당 수 산유국은 이미 그들의 최대 생산 능력에 근접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원래 OPEC 감산 합의의 역사는 속고 속임의 연속이었다.

OPEC+ 회원국의 지속적인 석유 개발 투자 부진

OPEC+에 속한 국가는 23개국이다. 이 중 사우디와 러시아가 OPEC+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두 나라는 충분한 증산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은 작년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신규 개발 투자가 매우 부진했다. 지난해 세계 석유 개발 상류 부문 투자는 15년 새 최저치인 약 3,300억 달러에 머물렀다. 2014년의 약 7,800억 달러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규모이다. 팬데믹에서 다소 벗어난 올해에도 투자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감소한 투자는 생산 능력 감소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만 석유 개발은 탐사부터 생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석유 개발 투자 부진이 생산 능력 감소로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있어서 그 시점을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사우디와 중국의 움직임, 그리고 새로운 변수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가 최근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²⁾ 사우디는 일 1,20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1,300만 b/d(barrels per day)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감산 기간 중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것은 향후 석유 수요 증가를 공

급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사우디의 이러한 움직임이 의미 있는 것은 사우디아말로 OPEC 회원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OPEC 회원국의 공급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 듯하다. 사우디의 예측이 틀리다면 늘어난 생산 시설로 인해 불필요한 유향 시설 유지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일부는 좌초자산이 될 수도 있다. 중국에서도 중국 국영석유 3사가 석유 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³⁾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으로 유가 변동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라는 점에서 중국의 움직임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작년에 비축량을 크게 늘린 데 이어, 올해는 석유 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금 석유 시장에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이다. 코로나19는 수요를 붕괴시킬 수도 수요를 급증시킬 수도 있는 요소이다. 다른 무엇보다 코로나19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도로, 항공 등 운송 부문 연료 수요를 억제하는 한 석유 수요가 예전으로 돌아오기 힘들다. 또한 미국의 제재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란산 원유의 시장 재진입 시기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사우디와 세계 최대 소비국 중국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곧 추가 공급원이 필요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S&P Platts, "Saudi Aramco's capacity expansion underway: sources", Jul 26.
3) Upstream(2021), "China calls for oil and gas spending boost as economy surges", Jul 27.

드디어 시작된 스페이스 오디세이, 변화의 길을 내다보다

민간 상업 우주여행 시대의 개막으로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주산업이 확대되면서 더불어 위성산업, 인터넷 산업 등의 성장도 주목받고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작점에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글: 윤은숙 아주경제 국제경제팀 팀장

억만장자들, 민간 상업 우주여행 시대를 열다
억만장자들이 우주로 떠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우주기업인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과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은 지난 7월 역사적인 민간 상업 우주여행 시대를 열었다. 7월 11일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은 지구 고도 88.5km까지 올라갔고, 이에 뒤질세라 9일 뒤인 7월 20일 아마존 창업자이자 민간 우주기업인 블루 오리진을 세운 제프 베이조스도 100km 고도를 찍고 내려왔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는 9월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주가 부자들의 놀이터가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몇 분간 지구 위에 머물다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들이 우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다. 지구 바깥에는 별처럼 수많은 경제적 기회들이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주목을 받는 우주관광산업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500억 달러에서 2040년엔 1조 달러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표면적으로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우주관광산업이다. 그 선두에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가 있다.

버진 갤럭틱은 지난 6월 미국 연방항공국(FAA)으로부터 유료 승객을 태우는 우주비행 허가를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월가는 버진 갤럭틱이 시범 우주여행을 성공한 여세를 몰아 2022년 초 우주여행 상업화에 돌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AB번스타인의 더글라스 핸드 분석가는 “시범 비행이 우주여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수요를 구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험 비행의 마지막 주자인 스페이스X는 9월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Crew Dragon)에 민간인 4명을 태우고 540km 상공에서 3일간 지구 궤도를 돌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민간인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내고, 2023년에는 일반인의 달 관광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투자은행 UBS는 우주관광이 2030년까지 4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체류 시간이 짧은 점,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점은 부정적 요소이다.

단기적인 급성장이 예상되는 위성산업

단기적으로 가장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위성통신 인터넷을 비롯한 위성산업이다. 우주발사체의 재사용 비용이 낮아지는 반면, 위성의 크기는 줄고 성능은 크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위성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건스탠리는 ‘우주: 마지막 개척지에 대한 투자(Space: Investing in Final Frontier)’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재사용 로켓(RLV·Reusable Launch Vehicle)’의 등장을 지난 1854년 세계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던 ‘오티스의

엘리베이터'에 빚대었다. 대중에게 엘리베이터가 처음 선보였을 당시, 아무도 그 파급력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20년 뒤 엘리베이터는 미국 대도시의 건축물과 도시 디자인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모건스탠리의 아담 요나스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재사용 로켓을 저궤도(Low Earth Orbit)로 가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날 수많은 마천루가 도시를 뒤덮기 전까지 엘리베이터 건설에 엄청난 혁신이 필요했듯이, 향후 재사용 로켓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고 비용도 더욱 절감된다면 우주산업의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블루 오리진은 우주관광에 사용되는 로켓 외에도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대형 로켓을 개발하고 있으며, 버진그룹도 소형 위성 탑재 로켓 회사인 버진 오비트(Virgin Orbit)를 소유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을 통해 우주 정거장행 화물과 우주인 수송을 맡았다. 이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는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24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달 착륙선 개발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의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사용 로켓의 진화와 함께 위성 대량생산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주산업의 경제성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사용 로켓 진화가 앞당길 인터넷 산업 분야의 발전

특히, 위성통신 인터넷 산업은 재사용 로켓 기

술 발전과 함께 가장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꼽힌다. 촘촘한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업체는 수많은 소형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 재사용 로켓 기술로 이 비용을 혁명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증강 및 가상 현실(AR·VR) 등 미래산업의 급성장세에 따라 위성통신 인터넷 산업 역시 ‘필수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제공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통신 무선 인터넷의 상용화로 메가바이트당 데이터 제공 비용은 현재보다 1% 미만으로 줄어들고, 위성통신 인터넷 관련 산업은 2040년 세계 우주 경제에서 최소 50%, 최대 70%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온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대표는 지난 6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산업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 프로젝트인 ‘스타링크(Starlink)’에 한화로 약 3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8월부터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성통신 인터넷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1만 2,000개의 저궤도용 소형 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 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스타링크의 계획은 향후 통신업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우주 테마 종목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다

우주산업의 잠재력이 이목을 끌수록 투자자들은 우주 테마에도 뜨거운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주요 우주 테마 종목을 모아 놓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기도 했다.

보잉(Boeing, BA)은 대표적인 우주 테마 종목으로 꼽힌다. 우리에게 항공기로 유명한 보잉은 사실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회사다. 상업용 제트 여객기를 비롯해 방위·우주 및 보안 시스템 업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보잉은 과거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NASA와 협력했으며 지금까지도 국제우주정거장 관리를 맡고 있는 기업이다.

보잉은 7인승 유인 우주선인 ‘CST-100 스타라이너’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NASA와 함께 국제우주정거장 상업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우주발사체 시스템’ 개발에도 나서는데,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LMT)과의 합작사인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ULA)’에서 CST-100 스타라이너를 우주에 실어 나를 발사체인 ‘아틀라스V’를 생산 중에 있다.

글로벌 모바일 통신회사로 꼽히는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이리디움)도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다. 66개 저궤도 위성(LEO)을 통하여 글로벌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고 있다. 이리디움의 서비스는 정부와 군(軍)뿐만 아니라 항공·해상·레저 산업에서도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리디움이 제공 중인 제품과 솔루션 등 통합 서비스 이용자는 미국 국방부와



전 세계 민간·정부 기관을 포함해 선원, 조종사, 인도주의자, 응급구조원 등 100만 명이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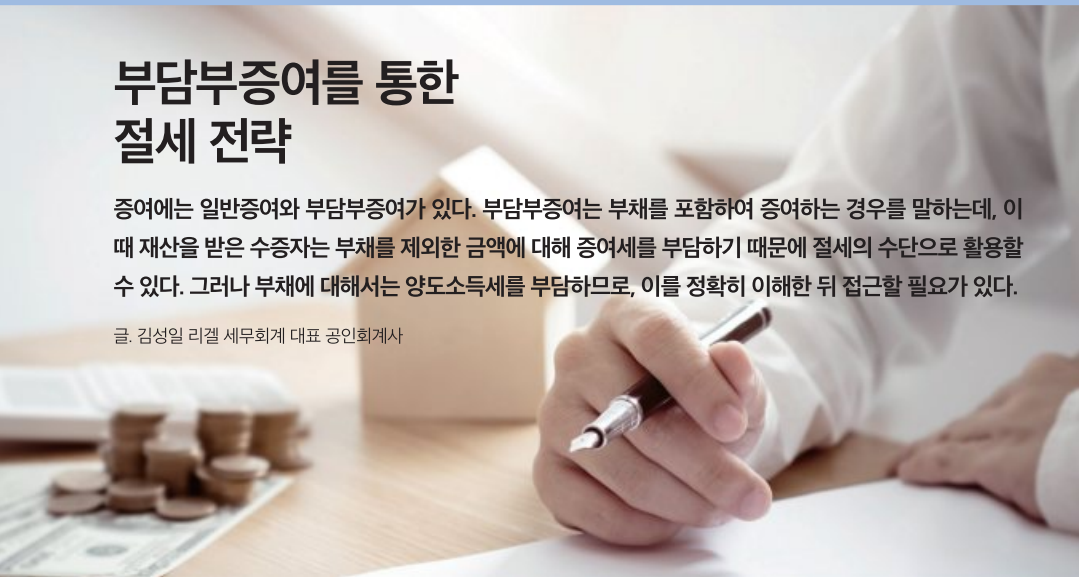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림블(Trimble, TRMB)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목이다. 트림블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분야의 선두로 불리는 기업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판매한다. 또 지리 공간 정보를 단순화하는 데이터 수집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로켓엔진 제조기업 에어로젯 로켓다인(AJRD), 인공위성업체 맥사테크놀로지(MAXR), 위성을 비롯해 군함·항공기를 제조하는 세계 최대의 무기 제조업체 노스롭그루먼(NOC) 등도 우주 테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기업으로 꼽힌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증여에는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다. 부담부증여는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한 뒤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글. 김성일 리얼 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양도와 증여의 명확한 차이

주택과 아파트(이하 주택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양도 또는 증여가 있다. 대금을 받고 주택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양도'라고 하고, 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증여'라고 한다. 즉 증여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이다.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차이

증여는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증여는 증여대상 자산의 시가 평가금액을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 평가금액이 15억 원인 경우 증여대상 금액을 15억 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산출·납부한 뒤 증여가 이루어진다. 반면 부담부증여는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다. 시가 평가금액 기준 15억 원(최초 취득가액 6억 원)의 주택에 10억 원의 전세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5억 원만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부채 부분은 양도가액으로 책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부담한다. 즉, 일반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감소한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간단히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증여자	-	양도세 납부
수증자	증여세 납부	증여세 납부

또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증여금액	15억 원	5억 원
증여공제(성인자녀)	5,000만 원	5,000만 원
증여세 과세표준	14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세율	40%	2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1,000만 원
산출세액	4억 2,000만 원	8,000만 원

일반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를 통하면 3억 4,000만 원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는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계산 편의를 위하여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공제는 생략한다.)

	비과세 적용 시	일반세율 적용	2주택 초과세율 적용
양도가액(부채금액)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취득가액(환산취득가액)	4억 원	4억 원	4억 원
양도차익	6억 원	6억 원	6억 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2억 4,000만 원	6억 원	6억 원
세율	38%	42%	42% + 20%
누진공제	1,940만 원	3,540만 원	3,540만 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7,898만 원	2억 3,826만 원	3억 7,026만 원

즉, 초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증여세는 3억 4,000만 원만큼 감소하더라도, 양도세가 3억 7,026만 원 증가하여 최종 세부담은 3,026만 원만큼 늘어나게 된다(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별도로 책정된다). 요약하면, 채무 부분이 커질수록 증여로 처리되는 부분이 줄어들어 증여세 부분은 감소한다. 그러나 최초 취득가액 대비 현재 시세가 증가하면,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물론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증여대상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 조건이 성립한다면, 부담부증여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양도소득세-비과세 판단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증여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기를 당부한다.



2021년 4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코로나19가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반면 경제 성장을 약화와 정책 정상화의 영향이 커질 것이다.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책의 되돌림 및 정상화에도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 여부이다. 4분기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성장 모멘텀의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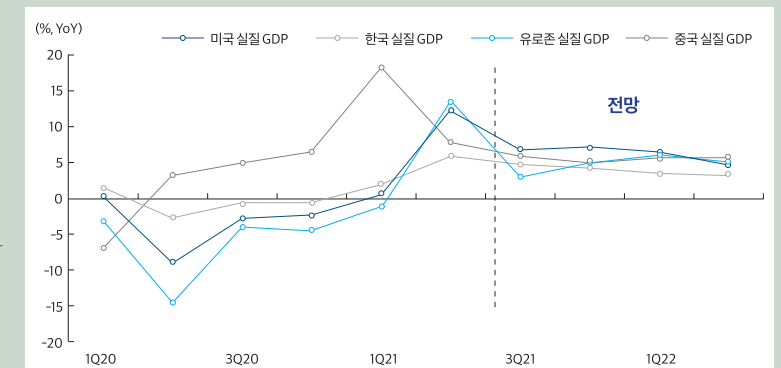
정책의 정상화는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먼저 통화 정책의 정상화는 경기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재료이기도 하다. 주식시장이 이미 경기 개선을 선반영했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한 만큼 공급되는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시중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악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

재정 정책은 목적이 달라짐에 따라 상반기와 같은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 재료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요 예로 미국의 경우 현금 지급이 중심이었던 상반기 추진한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과 달리 하반기 추진하는 미국 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과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y Plan)은 단기 성장 견인 효과가 크지 않다. 미국일자리계획의 주요 정책인 인프라 투자의 경우 재정승수¹⁾는 크지만 고용 증대를 통해 민간 수요를 창출하기까지 보조금 지급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미국가족계획의 주요 정책인 교육과 육아 등 복지 정책은 경제의 질을 높이지만 재정승수 자체가 크지 않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개인 소득 보전을 통한 직접적인 수요 창출이 재정 정책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약화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 및 중장기 성장 동력 마련으로 목적이 바뀐 것이다.

정책의 정상화와 함께 기저효과도 소멸되면서 경제 성장 모멘텀의 약화는 심화될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주: 전망은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1) 정부의 지출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재정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다.

것이다.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컨센서스도 3~4분기에 약해진 후 내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책 되돌림 속에 주식 변동성 확대 전망

4분기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 모멘텀 약화와 정책의 되돌림 속에 부진할 것을 전망한다. 특히 선진국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가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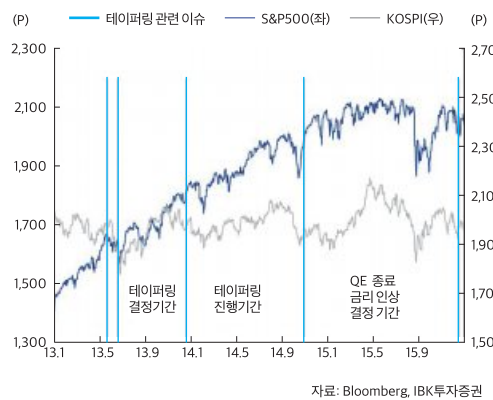
과거 연준이 QE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번째 양적완화) 이후 2013~2014년 테이퍼링을 진행할 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출구전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명 '테이퍼 탠트럼(긴축 발작)'이 발생해 주식시장이 급락하였다. 이후 연준이 구체적인 출구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고, 2014년 1월 테이퍼링을 시작했는데 특히 한국을 포함해 신흥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부진했다. 미국 증시 역시 변동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한국과 비교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연준의 테이퍼링 진행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경기가 개선됐다는 의미이고, 미국 금리 상승으로 달러화 자산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차 악화될 것이라는 점도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성장률이 고점을 찍고 하락했던 전후에 주식시장도 꺾이는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됐던 기업들의 실적도 정체될 것으로 예상돼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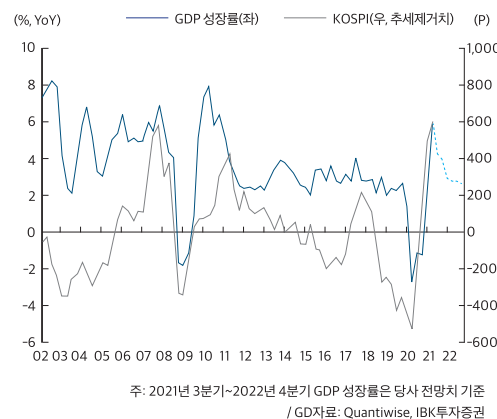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신흥국 리스크의 부각 가능성, 코로나19 상황 안정 이후 고질적인 글로벌 갈등 재부각 가능성(미중 분쟁, 북한 문제, 중동 갈등 등) 등이 더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

다만 4분기 들어 통화정책의 정상화 부담에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조정을 받을 경우 저가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가 정책의 정상화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주식시장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013~2014년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 및 시작 당시 미국과 한국 증시 추이



한국 경제성장률과 주식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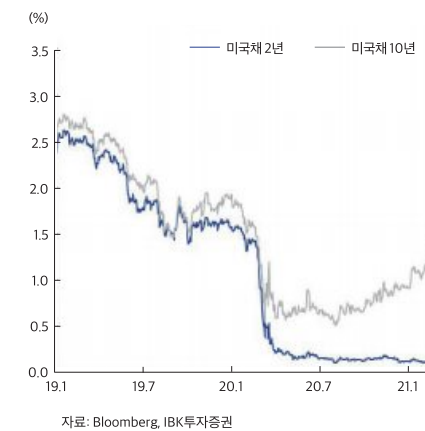
과거와 달라진 테이퍼링, 금리 완만한 상승세 전망

남은 연간 금융시장을 견인할 만한 대형 이벤트로는 테이퍼링을 꼽을 수 있겠다. 테이퍼링 자체는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벤트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으나 이미 금리에 상당 기간 반영돼 왔기 때문에 그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금리의 방향은 위쪽이지만, 상승 속도는 매우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연준의 테이퍼링 공표와 시행은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테이퍼링'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자산매입 축소 언급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고 한동안 미국뿐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 큰 불안감을 불러왔다. 사실상 금융시장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부상한 것은 연초 인플레이션 상승 이후부터였다.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연준은 테이퍼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회복이며 아직은 추가 진전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서 시장이 마침내 연준을 믿으며 4월 이후 금리가 서서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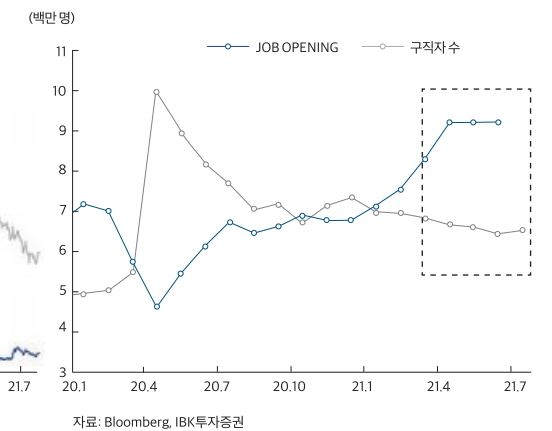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국 7월 고용지표 호조는 테이퍼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며, 미국 정부의 팬데믹 관련 실업수당이 9월 초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에도 고용시장의 꾸준한 개선이 기대된다. 미국 경기의 정점 논란과 하반기 경기 모멘텀 둔화라는 부담이 있지만, 아직 미국 고용시장에서 구인난이 절대 우위라는 점과 고용은 경기의 후행지수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남은 기간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다.

테이퍼링이 실제로 시작되면서 채권 수급에 영향을 미치며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금리 급등락(테이퍼 탠트럼)을 재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연준은 테이퍼링 시행 자체도 공표 이전과 유사하게 천천히 단계를 밟아갈 가능성이 높다. 과거 테이퍼 탠트럼 이후라 해도 테이퍼링이 시행된 뒤 금리가 안정되었던 것을 복기할 때, 4분기 이후 금리는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경기 정점 이후의 완만한 회복세 속에 테이퍼링의 느린 진행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미국 금리, 테이퍼링 우려에 좌우



미국 기업, 경기 정점에도 불구하고 심한 구직난 시달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계단 올라오시는 그 마음...’ 등의 문구로 방문하는 고객을 반기는 동부이촌동WM센터. 계단을 오르는 고객의 마음을 잘 알기에 따뜻한 믿음을 주고자 노력하는 동부이촌동WM센터는 믿음 그 이상의 신뢰를 주는 곳이다. 그 탄탄함의 바탕에는 언제나 성심성의껏 고객을 마주하는 자세가 있다.

글. 임산하 사진. 김범기

당장이 아닌 내일을 내다보는 성심

동부이촌동WM센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희정 팀장, 최소영 대리, 석원녕 대리, 이지연 대리, 손연주 PB팀장, 김용숙 센터장, 박미정 부센터장



고객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동부이촌동WM센터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동부이촌동WM센터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났다.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것을 일관되게 지키고자 하는 것. 동부이촌동WM센터만의 자랑스런 고집은 자연스럽게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단단히 쌓게 했다. 그래서인지 동부이촌동WM센터 홍보에 지대한 도움을 주는 이는 언제나 고객이다. “기존 고객님의 지인과 가족 분들이 새로운 고객님의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김용숙 센터장.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하는 ‘MGM 마케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동부이촌동WM센터의 정확하고 믿음직한 자세가 이루어 낸 결실이다.

함께 새로운 길을 내디디는 정예 팀원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동부이촌동WM센터는 새로운 결실을 위해 늘 힘찬 걸음을 내디딘다. 그 길에는 함께 걸어가는 7명의 동료가 있다. ‘명품 상담’이라 불리는 상담을 진행하는 진취적인 석원녕 대리, 외환전문역, 자산관리사와 AFPK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준비된 인재 이지연 대리, PBA 업무, 가계대출 및 기업금융 등 필요시 어떤 업무든 해결 가능한 트랜스포메이션형 인재 최소영 대리. 그리고 동부이촌동WM센터의 버팀목이자 4급 차



장의 자리에서도 팀장의 역할을 해내는 감리역의 송희정 팀장, 넓은 발로 어느 곳에서든 계약 성공률을 100% 가까이 달성하는 손연주 PB팀장, 유수의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PB팀장을 맡으며 금융자산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박미정 부센터장까지. 동부이촌동 WM센터에는 각자 자신의 자리 이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정예 팀원들이 모여 있다. 끝으로 김용숙 센터장은 센터의 리더로서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팀원들의 성장을 이끌며 지도한다. 쉬운 길은 없다는 것을 아는 그는, 팀원들이 길 위에서 지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귀를 기울인다.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다

한곳에 머물지 않는 동부이촌동WM센터는 꾸준히 스테디를 진행하고 있다. 각자 정리한 자산시장 동향 및 펀드 분석을 기준으로 토론을 하며 내일을 준비한다. 특별하게도 동부이촌동WM센터의 직원들은 세대별로 분포해 있는데, 세대를 중심으로 토의할 수 있어 색다른 성과를 얻기도 한다. 탄탄한 스테디로 무장한 직원들은 고객의 눈에도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준다. 스테디는 단연 고객을 위한 일이다. “이촌동의 ‘이촌(二村)’을 ‘이촌(二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며 “고객님을 형제자매라 생각하는 따뜻한 금융을 지향합니다.”라고 밝게 말하는 김용숙 센터장. 동부이촌동WM센터의 보드라운 마음은 오늘도 고객에게 다정히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월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 원까지 치솟으며 대박을 터뜨린 투자자들이 많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가상자산에 과세하지 않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실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올해에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적용되는 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22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 개정안

글: 권인욱 IW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2022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과세

2022년부터 과세되는 가상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한 주요 세법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은 개인의 투자소득이다

2022년부터 과세되는 대상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것이다. '법인'은 2021년 이전부터 과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 형태로 가상자산 투자를 진행한다면 현시점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2) 과세 대상은 2022년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대한 차익이다

2021년에 취득하였더라도, 2022년 이후에 양도(대여)를 해서 차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대상이다. 이때 양도란 유상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타인이 가진 이더리움과 교환하더라도, 유상(이더리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로 본다. 쇼핑몰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경

우에도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 대가(유상)로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타인(판매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양도의 개념에 부합한다.

또한 Defi(탈중앙화금융), Cefi(중앙화금융), 그리고 보유한 가상자산의 일부를 지분으로 고정하여 예·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이용하는 Staking(스테이킹) 등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존의 수량을 보존해 주며, 추가적인 보상을 주는 대여의 개념에 부합되는 소득도 2022년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다.

3) 세율은 22%로 분리과세이다

과세표준에 22%(국세 20%, 지방세 2%)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 금액과 상관없이 22% 정률 세율로 계산되며, 타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이다.

4)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250만 원'으로 계산한다

2021년 이전에 취득했다라도, 실제 취득가액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의 가상자산 시가로 취득가액 선택·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2022년 이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일부러 매도하고, 다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 만약 실제 취득가액이 2022년 1월 1일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2021년 이전에 구매한 내역을 보관하여 세무서에 증명을 해야 한다. 또한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먼저 구매한 가상자산이 우선 양도된 것으로 계산한다.

또한 필요경비는 양도 또는 대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다. 거래수수료, 전송수수료, 채굴 비용 등이 인정되지만, 투자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자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5) 신고납부는 자진 신고납부 방법으로 진행한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과세표준에 22%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라면 다음 연도 5월에 자진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가상자산 또는 원화(KRW)를 출금할 때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을 거래소 등에서 원천징수한다.

국내 거주자라면 스스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대형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자산 내역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여 거래소에서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등 내역이 복잡하면 스스로 계산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된 거래소

등에서 3개월마다 세무서에 거래 내역을 제출하므로, 세무서 측의 계산 내역과 자진신고 내역이 많이 차이 난다면,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6)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의 잔고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이 넘는다면,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세법이 존재한다. 기존에는 현금, 금융자산만 해당했으나,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해외거래소나 해외 지갑사이트 등에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월말을 기준으로 5억 원이 넘는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

7) 같은 연도 내에서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고, 다른 연도 내에서는 손실 이월(소급) 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비트코인으로 10억 원의 손실, 이더리움으로 25억 원의 이익을 냈다면 같은 연도에서는 손익을 통산하여 15억 원의 이익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러나 전년도(2022년) 또는 그 다음 연도(2024년)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도가 다르므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지 못한다.

2021년 이전에도 적용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2022년부터 과세로 적용되는 것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대여'다. 반대로 말하면,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과세된다는 뜻이다.

1)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특정 자산이 아닌, 포괄주의로써 '이익, 재산'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은 환금성이 있으면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다. 2021년 이전에는 증여 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고, 2022년 이후에는 개정세법에 의해서 증여 시점 전후 1개월 평균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전업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다.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어떤 자금으로 구매를 했는지 조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과세된다. 2021년 거래분까지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내역을 세무서에서는 알 수 없으



므로, 가상자산 투자로 구매했음을 증빙으로 소명해야 한다. 만약 소명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증여'를 받거나, '사업활동에 대한 소득'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3) 사업에 대한 대가로 받는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도 종합소득세(법인세)가 적용된다. 부가세 과세 대상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므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 경품, 소개 소득도 과세 대상이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등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규회원 소개 대가로 가상자산을 주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투자 행위가 아니므로, 기타 소득의 종류로 과세된다.

가을
정취의

정수를
거닐다

캐나다의 퀘벡

V

S

한국의 순천

캐나다의 퀘벡과 한국의 순천은 우리가 상상하는 가을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다. 각자의 모습으로 충분한 가을 정취를 내뿜는 두 지역을 천천히 거닐어 보자.

글. 임산하

시간이 만들어 낸 단풍과 도시의 조화

양쪽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나타내는 빨간색이 있고 흰 바탕 중심에 단풍잎을 품고 있는 캐나다 국기는 그 모습 때문에 ‘단풍잎기(Maple Leaf Flag)’라고도 불린다. 가운데 단풍은 캐나다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단풍국’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의 가을은 절경을 이루는 단풍으로 가득하다. 특히 미국의 국경과 맞닿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부터 퀘벡 시티(Québec City)까지 이어지는 ‘메이플 로드(Maple Road)’에서는 울긋불긋 수놓인 광활한 단풍나무를 만날 수 있다. 어떤 수식 없이 단풍나무를 뜻하는 ‘메이플’ 그대로를 이름에 담은 것만으로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실제 약 800km에 달하는 길 위에서는 끝없는 가을빛 속을 거닐 수 있다. 메이플 로드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퀘벡 시티는 퀘벡 주의 주도(主都)이자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긴 세월 단풍나무가 만들어 낸 풍광과 도시의 조화가 실로 장관을 이룬다. 구시가지로 불리는 올드 퀘벡(Old Québec)은 시간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모습에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샤토 프롱트낙 호텔(Château Frontenac Hotel)이 있다. 강이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성곽처럼 짓는 르네상스 풍의 샤토 스타일 건축물인 샤토 프롱트낙 호텔은 퀘벡 시티 어느 곳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 이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퀘벡 시티의 랜드마크로도 불린다. 퀘벡 시티의 아름다움에 배경이 되는 건물로서도 충분하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퀘벡 시티는 더욱 빛나고 찬란하다.

넉넉한 휴식을 선물하는 아브라함 평원

샤토 프롱트낙 호텔에서는 북아메리카 동부를 지나는 세인트로렌스(Saint Lawrence)강이 내려다보이는데, 그 강줄기를 따라 아름답게 펼쳐진 아브라함 평원이 있다. 아브라함 평원은 매 계절을 뚜렷이 품는 곳으로, 마을 곳곳의 풍성한 단풍과 드높은 하늘 그리고 그 모습을 거울처럼 담고 있는 세인트로렌스 강의 선명함을 한눈에 마주할 수 있다. 퀘벡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되어 주고, 여행객들에게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순간을 선사하는 아브라함 평원. 이곳은 1759년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아브라함 평원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가 있어 ‘전장 공원’이라고도 불리지만 이제는 산뜻한 아침을 맞이하고 조용한 저녁을 보낼 수 있는, ‘평평한 하루’를 선물하는 곳이다. 아브라함 평원에서는 평안을 넘어 잠시 태평해져도 된다. 그 누구도 재촉하지 않는 이곳. 잠시 눈을 감으면 가을바람이 가벼이 마음을 안아 줄 것이다.



샤토 프롱트낙 호텔 앞으로 펼쳐진 세인트로렌스강



넉넉한 휴식처 아브라함 평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드넓은 풍광

동부 국경지대 근처에 위치한 퀘벡은 캐나다 원주민의 말로 '강이 좁아지는 곳'을 일컫는다. 세인트로렌스 강폭이 좁아지는 곳에 위치한 퀘벡 시티에는 단단한 성곽이 둘러싸고 있다. 프랑스가 점령했던 퀘벡을 빼앗은 영국이 미국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1765년부터 총 길이 4.6km의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 올드 퀘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제 성곽은 올드 퀘벡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도 보인다. 여전히 1608년 프랑스 탐험가 사무엘 드 샹플랭(Samuel de Champlain)이 개척했던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올드 퀘벡. 마치 역사책 속 이미지가 살아난 것만 같다. 성곽은 역사의 요새가 되어 주는 동시에 후대 사람들에게 찬란한 풍경을 선물해 주었다. 산책로가 된 성벽을 따라 가면 벼랑 아래의 드넓은 풍광을 그대로 눈에 담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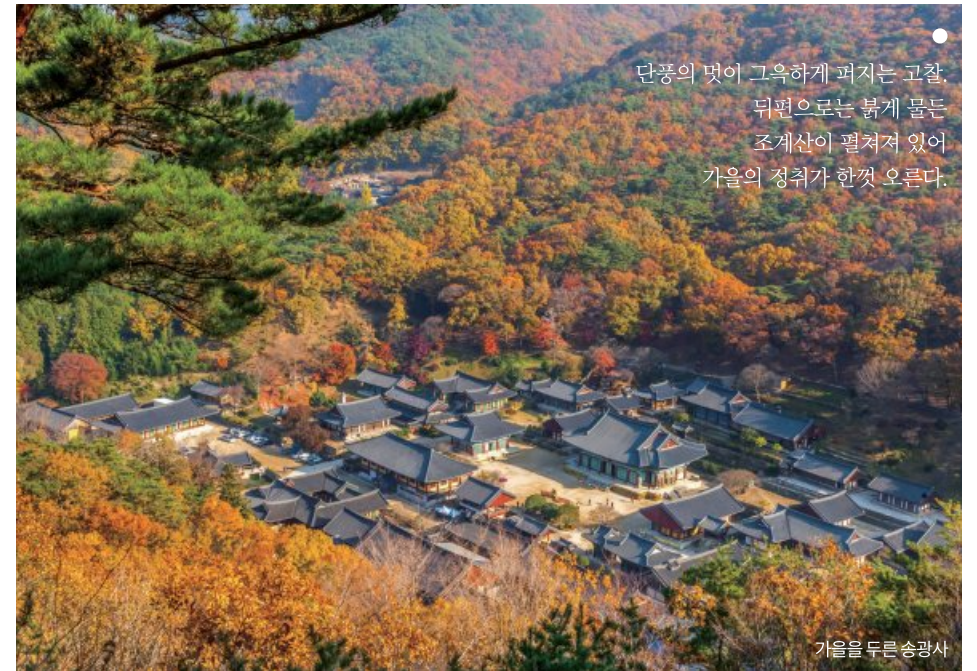
그리고 산책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뒤프랭 테라스(Dufferin Terrace)가 있다. 샤토 프롱트낙 호텔과 세인트로렌스강 사이에 놓인 이 산책로에서는 벤치에 앉아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곡을 들으며 계절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밤 산책은 단연 최고다. 강의 잔물결에 비치는 가로등과 단풍나무의 이색적인 어우러짐에 계절뿐 아니라 시간까지 잡아 두고 싶어 질 것이다.



밤을 품은 뒤프랭 테라스

● 샤토 프롱트낙 호텔과 세인트로렌스강 사이에 놓인 뒤프랭 테라스에서는 벤치에 앉아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곡을 들으며 계절을 만끽할 수 있다.

TIP 퀘벡 시티의 세인트로렌스강에서는 유람선 여행도 가능하다. 강에서 올려다보는 퀘벡 시티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것이다.



● 단풍의 멋이 그윽하게 퍼지는 고찰. 뒤편으로는 붉게 물든 조계산이 펼쳐져 있어 가을의 정취가 한껏 오른다.

가을을 두른 송광사

고찰이 품은 고즈넉한 자연의 풍취

‘대한민국 생태수도’라 불리는 순천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됐을 만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시다. 자연은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으며 ‘지금’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특히 순천의 가을은 남다른 선명함을 자랑한다. 순천에서는 고찰과 어우러지는 단풍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조계산에 위치해 있는 송광사는 신라 말 혜린(慧麟) 선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져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다. 무소유의 뜻을 전한 법정스님도 이곳의 산내 암자인 불일암에서 지냈다고 알려져 있다. 삼나무, 편백나무 등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사이사이로 단풍의 멋이 그윽하게 퍼지는 송광사. 뒤편으로는 붉게 물든 조계산이 풍성하게 펼쳐져 있어 가을의 정취가 한껏 오른다. 송광사에서 조계산을 넘어 더욱 동쪽으로 가다 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선암사가 조용히 반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측간’으로 불리는 선암사 해우소는 불일을 보지 않아도 꼭 들려야 하는 명소로 꼽힌다. 일찍이 정호승 시인은 <선암사>라는 시에서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라”며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자연이 주는 위로의 다른 모습이다.



마음의 소란을 사라지게 하는 순천만

단풍을 즐겼다면, 이제 갈대밭으로 걸음을 옮길 차례다. 세계 최고의 연안습지로 꼽히는 순천만습지(이하 순천만)는 그 광활함과 풍성함으로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순천만은 약 160만 평의 갈대밭과 약 690만 평의 갯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치를 듣고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넓이다. 실제 순천만을 가면 가장 단순한 생각이 먼저 든다. 땅은 넓고 하늘은 높다는 것. 자연은 원래 한없으니, 우리가 감히 자연을 점령해 보려 하는 것은 허튼 생각이라는 것. 약 2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넓은 순천만 갈대 길은 일몰 시간에 걷는 것을 추천한다. 황혼 무렵 넘어가는 햇빛에 갈대밭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 시간, 사이사이로 갈대의 그림자가 저 명암이 교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쉽 없이 울리던 마음의 경적들이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자연이 주는 선물, 바로 정화(淨化)다.

순천만에서는 해마다 '순천만 갈대축제'도 열린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이지만, 잔잔하게 일렁이는 갈대밭은 화면 너머에서도 충분히 눈부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정답게 물드는 낙안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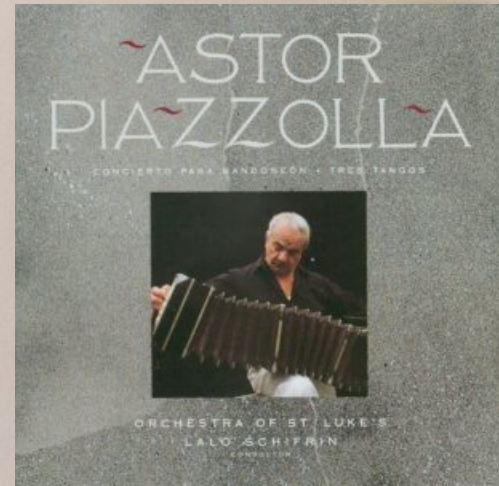
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 순천에는 조선시대 마을의 원형이 보전돼 있는 곳이 있다.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으로, 1397년 일본군의 침입에 대항해 김빈길이 의병을 일으켜 토성을 쌓은 것을 1626년 낙안군수로 부임한 임경업 장군이 석성(石城)으로 중수했다고 전해진다. 그 덕에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낙안읍성은 실제 108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통 마을로, 정지해 있지만 정지돼 있지 않다. 과거와 현재가 꾸준히 만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구조의 초가집과 가가호호 에두른 돌담이 옛 자취를 느끼게 해 줄뿐더러 남원 광한루, 순천 연자루와 더불어 호남의 명루로 불리는 낙민루와 동헌(東軒), 객사(客舍) 등이 남아 있어 마을의 역사를 짐작케 한다. 낙안읍성에서는 낮은 집들 덕에 사방으로 트인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다. 석양 무렵에는 초가집과 하늘이 뜨겁게 물드는 장면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데, 그 순간 초가집이 숨기고 있던 진짜 토색이 드러난다. 붉음과 따뜻함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민초의 역사도 보이는 듯하다.

순천의 가을은 다채롭다. 그리고 그 다채로움은 언제나 자연 속에서 피어난다. 어느 곳에서나 자연이 맞닿아 있는 순천의 소담하고 풍성한 가을빛 속으로 풍덩 빠져 보는 것은 어떨까.

TIP 순천만습지에서는 생태체험선에 승선할 수 있다. 순천만에 서식하는 철새를 탐사하거나 선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주위를 구경해도 좋다.



CLASSIC CLASS



탱고 음악에 영광의 역사를 선물한 아스토르 피아졸라

아르헨티나 땅을 밟은 이민자들이 비감과 향수를 달래기 위해 시작한 춤, 탱고.

그래서인지 음악으로서의 탱고에는 웅장하면서도 구슬프고, 특유의 활발함 속에서도 공허함이 나타나곤 한다.

삶의 애환이 그대로 음률이 된다면 탱고와 닮지 않았을까 싶지만 탱고는 태생 때문에 천박한 음악이라는 면박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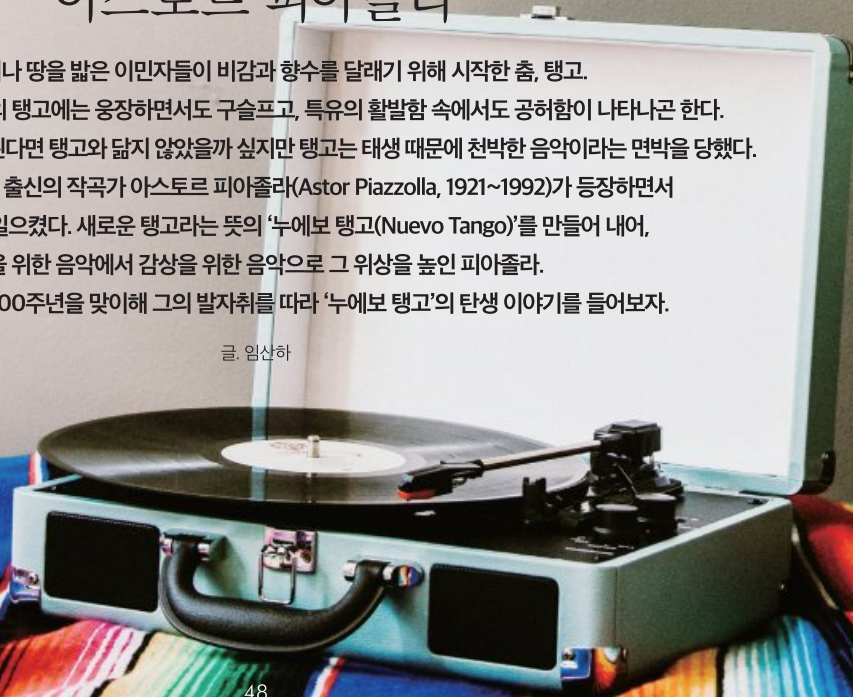
그런데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 1921~1992)가 등장하면서

탱고에 혁신을 일으켰다. 새로운 탱고라는 뜻의 '누에보 탱고(Nuevo Tango)'를 만들어 내어,

춤 위한 음악에서 감상을 위한 음악으로 그 위상을 높인 피아졸라.

피아졸라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 '누에보 탱고'의 탄생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임산하



음악을 통해 세계를 배운 어린 소년

피아졸라가 작곡한 '아디오스 노니노(Adiós Nonino)'는 한국인에게 꽤나 특별한 곡이다. 피겨 왕좌에 오른 김연아 선수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고별무대를 장식한 곡이기 때문이다. 당시 김연아 선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연기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인에게 단연 명곡으로 꼽히는 이 곡은, 피아졸라가 할아버지(Nonino)라는 애칭으로 부르던 아버지에게 '안녕(Adiós)' 하고 작별을 전하는 곡이다. 아버지를 향해 애뜻하고도 밝은 이별의 선율을 그려 낸 피아졸라. 그에게 아버지는 인생에 풍성한 길을 내어 준 사람이었다. 피아졸라는 1921년 3월 1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속한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에서 태어나지만, 아메리칸드림의 꿈을 품던 가족을 따라 뉴욕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피아졸라의 가족은 할렘 가를 떠돌게 되는데, 평탄치 않은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피아졸라에게 '탱고의 영혼'이라 불리는 악기 반도네온을 선물한다. 그의 아버지는 조국의 음악을 통해 뿌리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선천적으로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던 피아졸라에게 음악이 주는 극복과 저항의 힘을 가르쳐 주고자 했다. 피아졸라에게 반도네온은 작곡가의 길을 걷게 해 준 시작이자 전부였다.

탱고 본연의 음악으로 귀를 춤추게 하다

반도네온 연주자로 거듭나며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 피아졸라는 13살에 아르헨티나의 탱고 가수이자 작곡가인 카를로스 가르델(Carlos Gardel)의 반주자로도 활약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재즈와 클래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1937년, 16살의 그는 다시 돌아간 아르헨티나에서 작곡가 알베르토 히나스테라(Alberto Ginastera)에게 정통 클래식을 배우고, 이후 1953년 파비엔 세비츠키 작곡 콩쿠르 우승으로 파리 유학의 혜택을 받는다. 그곳에서 '음악가의 음악가'라 불리던 여성 작곡가 나디아 불랑제(Nadia Boulanger)를 만나는데, 그는 '탱고 음악가'로서의 피아졸라를 알아보고는 '진짜 피아졸라'가 되기를 조언한다. 그제야 피아졸라는 "탱고는 발이 아닌 귀를 위한 음악이다."라고 말하던 자신의 내밀한 진심을 돌아보게 된다. 결국 그는 '누에보 탱고(Nuevo Tango)'를 통해 탱고를 하나의 음악 장르로 만들어 낸다. 그의 몰입과 용기 덕에 비로소 전 세계인이 귀로 즐길 수 있는 탱고 음악이 탄생한 것이다.



CONCERT INFORMATION

아스토르 피아졸라 콰텟 내한 공연(9월 28일 롯데콘서트홀)

1960년 피아졸라가 창단한 콰텟의 명맥을 잇는 유일한 탱고 앙상블의 공연이다.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수 음악회 Piano&Talk-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기념(10월 23일 반포심산아트홀)

피아노, 바이올린, 반도네온이 어우러진 연주에 해설이 함께하는 음악회이다.

무엇이든 새로운 게 각광받는 요즘 시대에 '전통'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술이다.

한말 시인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에서 평양 감홍로(甘紅露), 전주 이강주(梨薑酒), 정읍 죽령고(竹瀝膏)를 조선의 3대 명주로 꼽았는데,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 역사의 명주, 제대로 알고 즐겨 보자.

글. 강시내

역사를 잇은 이에게 명주는 없다 전통의 3대 명주

감홍로



맛에 취하고 향에 취하는 낭만의 술, 감홍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규경은 당대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중국에 오향로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평양의 감홍로가 있다.”라고 했다. 또 판소리 <수궁가>에는 자라가 토끼의 간을 빼앗기 위해 “용궁에 가면 감홍로가 있으니 함께 가자.”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니 그 맛에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감홍로는 탁주나 청주, 약주 등 곡주를 증류한 소주에 꿀로 단맛을 내고 장미, 매화, 인삼, 산사 등의 꽃과 약재를 넣어 빚는데, 이때 넣은 주재료가 장미면 장미로(薔薇露), 매화면 매화로(梅花露) 등 다른 이름을 붙이는 혼성주(混成酒)다. 꽃과 약재가 함께 쓰이는 만큼 꽃향기와 계피 향의 어우러짐이 감홍로의 매력이다. 첫맛은 단맛이 나면서 뒤이어 알싸한 계피 향이 입안에 퍼지는 감미로운 술이다.

죽령고



영원한 건배주, 이강주

이강주는 배 이(梨), 생강 강(薑), 술 주(酒) 그 이름에 담긴 대로 배와 생강을 주재료로 하고 여기에 울금, 계피 등을 더한 맑은 술이다. 배의 시원한 청량감과 생강의 알싸함에 노란색을 내는 울금 그리고 부드러운 목 넘김을 주는 아카시아 꿀이 어우러져 독특한 향과 맛을 낸다. 역사적으로 이강주는 일종의 '건배주'로 사용될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술이었다. 고종 때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에 이강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고, 현대에 들어서는 남북적십자 회담 등 국가 주요 행사에 대표주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금도 전북 전주에서 이강주가 생산되고 있는데, 1987년 조정형 명인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이강주를 현대화, 대중화하면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강주



쓰러진 이도 일으키는 약주, 죽령고

전라도 지방은 대나무 주산지인 만큼 대나무를 활용한 식문화가 발달했다. 이 중에 조선 3대 명주 중 하나인 '죽령고'가 있다. 죽령은 푸른 대의 줄기를 숯불이나 장작불에 쪄서 흘러 나오는 수액 같은 기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죽령을 섞어 증류한 술이 바로 죽령고다. 죽령을 추출하는 데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 한때 그 전통이 끊길 위기도 있었다고 한다. 많은 전통주가 약재를 사용하여 약주로도 쓰였다고 전해지지만 특히 죽령고에 대해서는 역사서나 구전에서 그 약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발견된다. 명나라 때 약학서 『본초강목』에는 “혈압을 다스리고 중풍 등 혈관관계 질병과 기관지 천식, 어혈을 풀고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해열작용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료출처: 『한국의 전통명주1: 다시 쓰는 주방문』 박옥담, 2005, 코리아쇼케이스
이미지 출처: 감홍로-gamhongro43.modoo.at / 이강주-leegangjumall.com
죽령고-태인양조장.com



VIP고객님들을 위한
IBK만의 품격있는 서비스



WIN CLASS 서비스패키지

✎ 공항 리무진 의전 서비스

고급 리무진으로 공항(자택)까지 전문기사를 통한 의전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이용 가능 공항 :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 이용 가능 지역 : 인천/김포공항은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일부 도시(시흥, 김포, 성남, 과천, 안양, 광명, 인천, 부천, 고양, 일산, 구리, 하남), 김해공항은 부산지역, 제주공항은 제주지역 내에서만 제공 가능

✎ 웨딩카 지원 서비스

신혼부부를 위한 고급 웨딩카로 식당에서 공항까지 의전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이용 가능 공항 및 이용 가능 지역은 공항리무진 의전 서비스와 동일

✎ 작명 서비스

고객님의 소중한 자녀, 손주 등 직계비속의 이름, 회사·건물명 작명 제공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의 직계비속(신생아 및 입양), 고객 명의의 회사·건물

| 국내 유명 작명가의 추천 작명 5개(1건당)

✎ 경조사 서비스

상 또는 결혼이 발생한 고객에게 결혼 시 축하 화환, 조사 시 조화 및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서비스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오니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바랍니다.